활살

선거를 앞두고……

1958년 (88)

3 -MAY 2 6
Copy ____ 1959

백 인균 그림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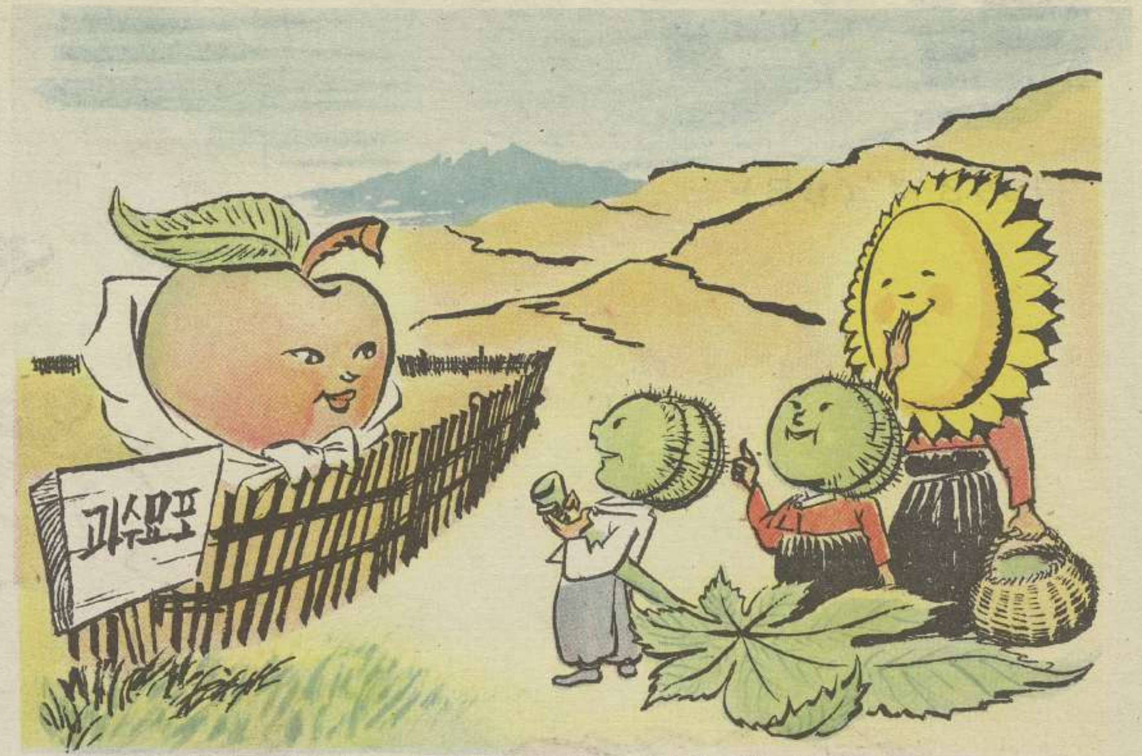
밭 농사에서의 새로운 전변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가물을 이겨 냅시다.

홍 종호 그림

평 먹고 알 먹기

조 명식 그림



피마주—사과 아주머니 저 파수 밭이　비여 있는 동안
좀 빌립시다

각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파수 개간지에 파수 묘목을 옮겨 심기전 기간을 리용하여 피마주 해바라기 등 유지작물을 재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박 승히 그림

한리의 두 조합

만포군 건중리 중리 농업 협동 조합 한 조합원의 집에 황해남도에서 친척이 찾아 왔다.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분배를 많이 탔어요?》

주인이 물었다.

《올해엔 가물었지만 가물하구 싸운 덕에 농사가 잘 돼서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배를 탔답니다.》

《그런 평지에서는 참 좋겠어요. 여긴 산'골이 돼 놔서 논이 적은 데다 땅도 좋지 못해서 쌀이나 돈이 나올 데가 있어야지.》

《금년에 분배는 얼마씩 돌아 갔습니까?》

《호당 겨우 1 톤 432 키로 하고 현금 9,343원씩 탔지요.》

《왜 그렇게 적게 돌아 갔어요? 어제 오다 건너 마을 건중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꽤 많이 돌아 갔드만요. 알곡도 여기보다 호당 30 여 %나 더 분배 받고 현금은 여기보다 2.2배나 더 돌아 갔다니까》

《나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참 모르겠어요, 우리 조합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땅, 비료, 부업 조건 모두 꼭 같은데 어데서 그런 현금 수입이 많이 나오는지?》

《그건 틀림 없어요, 그 조합 사람들이 다 그럽디다》

《그래요? 거 참, 조화구만요?!》

《이 조합에서도 부업을 했어요?》

《작게나 했나요. 소를 84마리, 돼지를 42마리나 길렀는데요》

《양잠은?》

《그건 조금 밖에 못했어요》

《양은요?》

《………》

《양을 모릅니까?》

《아니, 치질 못했어요》

《그럼 오리는?》

《오리도요》

《닭은 쳤겠지요》

《파종한 데 들어 가 파 헤치기도 하고 또 배추 밭에 자꾸 들어 가서…》

《그럼 닭도 못 쳤단 말입니까?》

《못 쳤어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요? 그것두 심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긴 꿀이 잘 된다니까 벌은 많이 쳤겠구만요?》

《벌통도 못놨어요》

《하하— 그러니 건중 협동 조합보다 수입이 못할 수 밖에, 건중 협동 조합에서는 소, 돼지도 이 조합보다 많이 즉 소 104마리, 돼지 92마리를 길렀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합에 없는 양을 105마리, 그중 면양을 88마리…》

《면양이 뭔가요?》

《털을 깎아 쓰는 양 말입니다. 그래 면양을 88마리, 산양을 17마리, 또 닭을 80마리, 오리를 99마리, 양잠두 춘잠을 22 매, 추잠을 18매, 그리고 또 벌통을 47개나 놔서 거기서도 48만원, 벌의 종자를 내서 거기서 또 42만원, 공지에다는 해바라기를 심어서 거기서도 또 현금 수입을 얻구, 자 이러니 이 조합보다 두 배나 되는 현금 분배가 돌아 갈 밖에. 많은 조합 돈을 들여서 수다한 건설을 하고도 말입니다. 건중 협동 조합은 우리 평지 협동 조합 부럽지 않드만요. 알곡 분배량도 평지보다 별로 못하지 않은 데다 커다란 구락부가 있겠다, 리발소가 있겠다, 그리고 양복점, 제분소, 제재소, 야장'간… 없는 게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다각적인 경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설은 하나도 못하고도 현금 분배를 절반도 못되게 받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만?!》

《때문에 산간 지대 협동 조합들에서도 당의 정책대로 땅에만 매달리지 말고 산도 리용하고 강도 리용하고 공지도 리용하고 즉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리용한다면 평지대 농업 협동 조합에 못지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구만요!》

리 운 봉

한 수 밖에 모른다

송 용남 그림

—여보시오 이 만수 성찬이 보이지 않소?

일부 산간 지대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풍부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파수 양잠 양봉 공예 작물등의 다각적 경리를 조직하지 않고 있다.

들뜬 청년

허 능택 그림

청년—제비야,　나는 도시로 갈려는데
무슨 새 소식을 못 들었니?
제비—농촌 청년들이 문화적인 농촌을 건설하는데
궐기했다고　도시 사람들도　칭찬 합디다

개인 가축은 늘었지만

—보십시오 돼지가 얼마나 많은가를

리 영준 그림

금천군 양항리 고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공동 축산업에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기자의 실망

재령군 상성 농업 협동 조합

기자—금년에 랭상모를 몇 정보할 계획입니까?

관리 위원장—금년엔 29 정보 할 계획입니다.

기자—그러면 논 면적의 절반에 랭상모를 실시할 계획이구만요.

관리 위원장—그렇습니다.

기자—작년보다 3 배나 많이 랭상모를 하실려니 대단히 바쁘시겠습니다.

관리 위원장—예 좀…

기자—그 준비들을 하고 있는 정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기자는 노트를 펴고 적을 준비를 한다. 그러자 관리 위원장은 갑자기 난처한 얼굴이 된다.

기자—뭐 겸손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 위원장—아닙니다. 사실은 저 랭상모판에 덮을 문짝을 짜야겠는데 몇 개 짜야 할지 몰라서…

기자—그렇습니까? 그러면 방풍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 위원장—울바자'감은 있는데 거기에 칠 가마니가 없어서…

기자—나래는요?

관리 위원장—그것두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아직…

기자는 실망하여 노트를 덮고 일어 섰다.

기자—그러면 그 준비들을 속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관리 위원장—좋은 재료를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기자—아닙니다. 이거면 비판 기사를 쓰는데 충분합니다.

영양 단지

재령군 신환포리 신환 농업 협동 조합에 어느 한 신문 기자가 찾아 갔다.

《이 조합에서는 영양단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조합에서는 니탄은 없기 때문에 개바닥 흙 50% 하고 초목회(아궁재) 50%를 혼합해서 단지를 만들어 아궁에다 굽고 있습니다.》

《아궁에다 굽기까지요?》

《예》

《신문에 내야겠습니다.》

그러자 관리 위원장은 갑자기 겸손해지며

《뭐 굉장한 것도 못되는데 신문에 까지 소개할만한 게 되나요.》

《아니 이건 신문에 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양단지를 만드는데 기술 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니탄이 있는 데서는 니탄 50%, 부식 퇴비 30%, 밭 흙 10% 우분 10%의 비률로, 니탄이 없는 데서는 부식 퇴비 60%, 밭 흙 30%, 우분 10%의 비률로 섞어 만들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는가 하면 그렇게 여러가지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개 바닥 흙과 초목회만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단지가 보유해야 할 성분들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양단지가 땅에 들어가 인차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영양단지를 주먹으로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올 정도로 묽게 해야 하겠는데 이 조합에서는 인차 잘 풀리지 못하게 구었으니까요.》

《아니 그럼 찬양이 아니라 비판하시겠단 말씀입니까?》

든든히

××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은 작년에 한 조합원이 랭상모를 많이 하자는 제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가만! 금년에 남들이 모두 하는데 되는 걸 보아가며 하세. 괜히 실패해서 낭패를 보면 어쩔라구.》

그래서 그 조합에서는 랭상모를 겨우 3% 가량 했다.

가을이 되여 랭상모를 한 논'배미에서는 벼가 쏟아졌다. 랭상모를 40%나 한 옆 조합에서는 전해보다 훨씬 많은 분배가 돌아 갔다.

관리 위원장은 무릎을 탁 쳤다.

《우리두 30% 쯤 했더면!》

그러나 조합원이 목화 영양단지를 하자고 제기했을 때 관리 위원장은 또 보수성 강한 본성을 들어 냈다.

《아니 남들이 한 걸 보구… 든든히 하는 게 제일이야…》

그러나 관리 위원장은 그렇게도 든든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만 한다면 조합의 경제 토대는 든든해지지 못할 것은 뻔하지 않는가?

소로부터

저는 순천군 남포 농업 협동 조합에 있는 소올시다. 우리 조합은 금년도에 적어도 자급 비료가 5,900톤 필요하지요. 때문에 우리는 관리 위원장이 4,400톤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마 계획을 저렇게 적게 세웠다가 초과해 가지구 상부에다 초과 생산했다구 보고하려고 그러겠지 120%쯤). 우리 관리 위원장은 약은 사람이야 하고 우리는 감탄까지 했지요. 그러면 우리 조합이 신문에 날지도 몰라 하고 생각한 동무까지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지요. 120%가 아니라 12%를 확보하고는 더 생산할 것은 꿈에도 꾸지 않는가 봐요. 정당 겨우 2톤 300씩 돌아 가게 확보하고 말이지요. 로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부대 로력 뿐만 아니라 원 노력까지도 놀고 있는 데도 말이지요. 옥수수 짚이며 북데기며 인분 등 원천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신문에 찬양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화살"에 나게 되었답니다.

일도 그처럼 했으면

황해북도 수안군 사창 농업 협동 조합 제 1 작업반에 있는 한 조합원이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 김 진화에게 찾아 왔다.

《부위원장 동무, 우리 작업반에서는 12월 20일이 되도록 아직 콩과 옥수수 탈곡을 못했는데 지금 탈곡엔 7 명만 동원되고 나머지 반원 15 명은 엿을 대려 팔면서 탈곡엔 동원되지 않고 있으니 됐어요. 부위원장 동무가 좀 이야기를 하시우》

그러나 부위원장이 말했다.

《그건 작업 반장에게 말하우, 나는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지만 1 작업반에서는 반원이니까》.

그 조합원이 또 물었다.

《우리 조합에서는 아직 랭상모 준비도 자급 비료도 확보 못했는데 어떻거겠습니까?》.

《그건 내게 말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말하시오》.

그 조합원이 나가자 건달뱅이 조합원이 찾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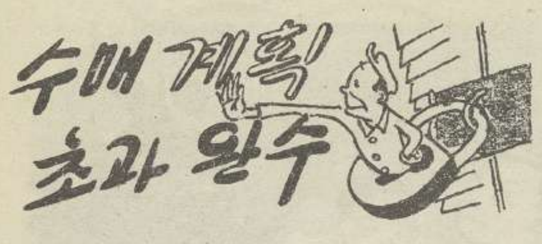
《술 마시려? 암, 가구 말구》.

김 진화는 저고리 고름을 매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쳐 나왔다.

조합원들은 술 마시려 가는 부위원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일도 술 마시듯 했으면 좋으련만…》.

리 운봉



수매계획 초과 완수

김 문규

림 옥수 녀성은 또 헛'길이 되지나 않을까 기연미연하면서도 그러나 곡식은 팔아야 하겠으니 하는 수 없이 일찌기 집을 나섰다. 곡식 달구지를 몰아 읍까지 불과 십리'길을 절반 가량 왔을 때 퍼뜻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아침 일찍 가서 량곡 상점이 문을 열었을까?》 아닌게 아니라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전번에 헛탕을 친 것은 바로 그날이 장날인 것만을 생각하고 일요일인줄은 알지 못하고 갔었기 때문이였다. 보통 날이드래도 일요일에 상점들이 문을 여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하물며 장날이니 소비 조합 상점들이 기를 쓰면서 일을 할적 하다. 그러나 황주 량곡 상점만은 무슨 특별한 타산이나 가지고 있는지 툭 하면 문을 닫고 찍하면 수매원이 없어지군 한다. 바로 전번 일요일에도, 황주 량곡 상점에서는 문을 잠그고 아무리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도 종시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물론 벌써 해는 한낮이 가까워서 모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한게 틀림 없는데 별달리 까다로운 량곡 상점이라 이렇게 일찌기 남들과 같이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을상 싶지 않았다.

길 한복판에서 일부러 서성거리면서"밥 한 솥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족히 보낸 후에 다시 달구지를 몰아서 상점에 들어 섰다.

량곡 상점 책임자 변 학관 동무는 무슨 심사 편치 않은 일이나 있었는지 잔뜩 량미간을 찌프리고 있다. 량곡 달구지가 상점 앞에 닿자《그게 뭐요》하고 톡 쏘아 부쳤다. 《강냉이외다 좀 사 주구려.》

가마니채로 저울에 올려 놓고 보더니

《삼등이요.》 한다.

림 옥수 녀성은 어이가 없어졌다.

《아니 왜 삼등이예요.》

《왜라니 삼등이니까 삼등이지요. 우리 상점에서는 아무 곡식이나 모두 삼등품으로 매기오.》뚝잡아 뗀다.

《그거야 곡식 나름이지 모두 삼등으로 하는 법이 어데 있어요.》

《흥 얼마 전에 일등짜리 몇말 샀더니 량곡 창고에 가서 이등으로 되는 통에 내가 돈을 처넣었소》

《그래도 우리 강냉이는 전번 현물세 때 모두 일등품으로 감정 받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곡식을 보구서 감정을 해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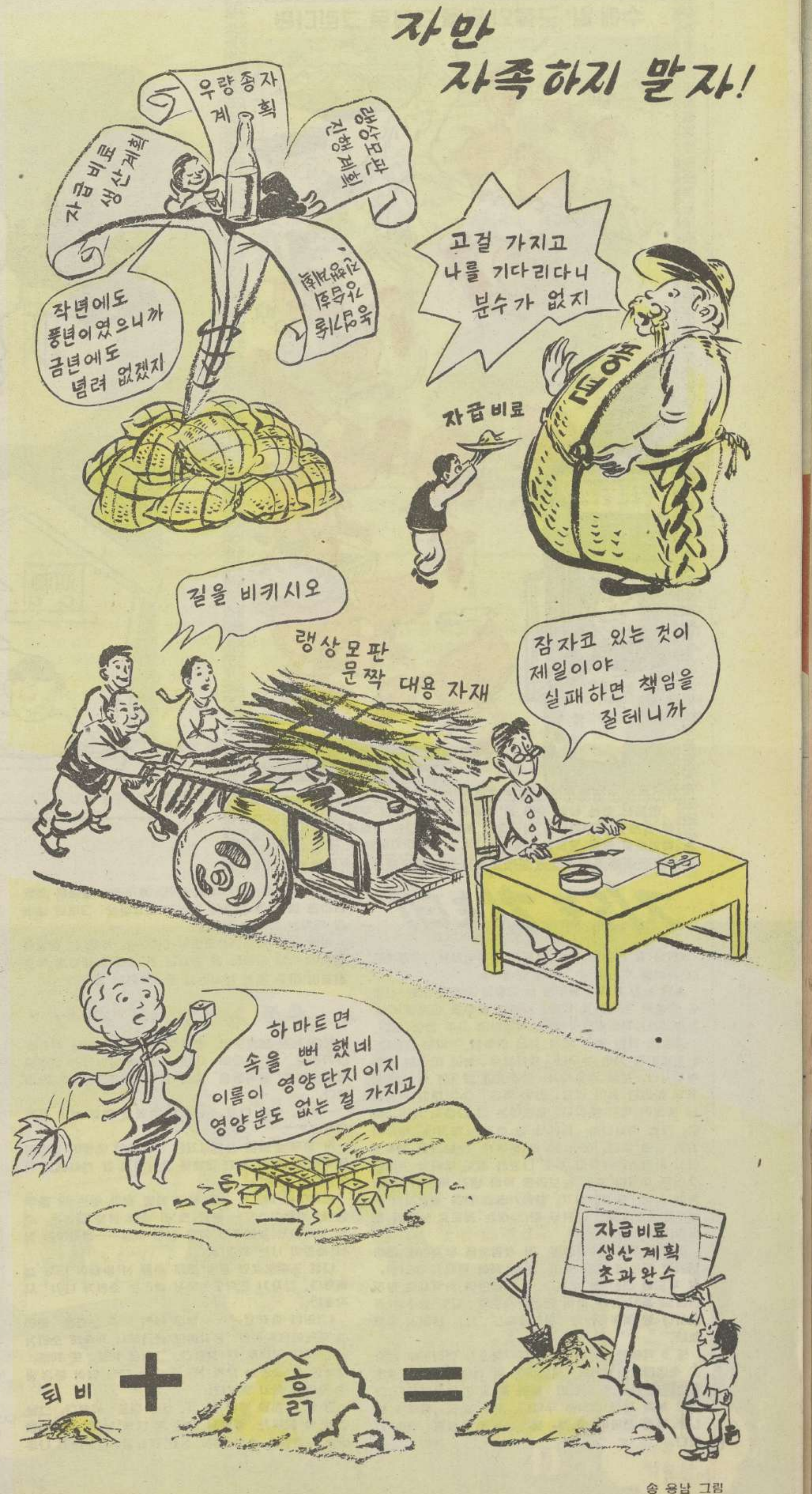
《곡식을 보라구요. 이 바쁜 세월에 귀찮게 누가 그렇게 하겠소. 정 싫으면 팔지 말구려, 나도 꼭 사야 하는 것도 아니요.》상점 책임자는 배짱을 쓴다.

림 옥수 녀성은 부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동무네는 농민들이 가져 오는 량곡을 사지 않을 작정이요.》

《하 왜 안사겠소, 안사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샀소, 우리는 벌써 전에 수매 계획을 초과 완수했소. 그러니 뭘 우리가 안달아 할게 있는가 말이웨다.》상점 책임자는 시침을 뗀다.

아닌게 아니라 황주 량곡 상점에서는 소비 조합 군련맹에서 시달한 하루'동안이면 모두 수매할 수 있는 계획을 열흘이나 걸려서 다 해 놓고는 수매 계획 초과 완수라 하여 일요일이니 쉬고 아침 이르니까 쉬고 오후가 되었으니 그만 쉬자 하는 등으로 쉬는 짬짬이 농민들의 여유 량곡을 사들이고 있다.



송 용남 그림

수매 일'군들의 말을 그대로 그린다면

리 영춘 그림

만포군 춘산 상점 수매 일'군들은 군내의 축산 부산물 원천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원천이 없다는 구실로 작년도에 닭털 오리털 등은 한 그람도 수매하지않았다.

항상 따뜻하게

결혼 전

결혼 후

최 영근 그림

지도는 하는데

《일을 잘 하려면 하부 심정에 어두워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도할 수 없단 말야…》

청단 농장 지배인 동무는 늘 이렇게 강조하시며—사업도 그렇게 조직하고 있다. 지배인 동무를 비롯해서 기사장, 기사, 지도원들이 매개 작업반을 자주 돌아 본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것은 리해할 수 없는 일이다. 5 작업반엘 가면 누구나 처음으로 눈에 띠이는 것이 역우사다. 보통 역우사가 갖추어야 할 4면 벽 중에서 겨우 한편만 벽이 있고, 좌우 벽은 수수'대가 엉성해서 명색이 벽일 뿐이고, 전면에는 그 나마도 벽이 없다. 그런 축사나마 좁아서 한 마리는 쫓겨나 역우사 밖에 나와 있다. 어느 날 리 동무가 눈보라를 헤치고 이곳 5·작업반에까지 지도 나왔을 때도 추위에 거슬린 소들은 휘몰아 치는 눈보라를 막아 내기 위하여 한편 벽에 서로 의지하려고 버둥거리고 있을 때였지만 리 동무는 《짐승들이 추위두 탄다》하는 정도로 느꼈을 뿐이였다.

이처럼 지도 일'군들이 각 작업반을 부지런히 돌아 보기는 하는데 다만 돌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지도를 하는 게 문제다. 5 작업반의 역우사로 말하더래도 춥기 전에 벌써 만들어지도록 지도 방조를 주었어야 할 것이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또 9 작업반에서는 일 잘하던 황소가 며칠만에 갑자기 죽었다. 사육원이 무엇이든 막 쓸어 먹이는 것을 한번만도 아니고 여러번 보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본척 만척 내버려 두었다. 죽은 소를 해부해 보니까 양철 쪼박이 3 개, 못 1 개가 위장에 박혀 있었다.

국가 재산을 자기 것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늘 돌아 보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단 농장 지도 일'군들이 더운 날, 추운 날 현장을 돌보아 하부 실정을 잘 아시는 건 좋은데 대체로 무엇 때문에 자주 돌아 보시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공동 재산이라 해서

청단 농장 뜨락또르 운전수 박 동무가 교대 작업에 나가려고 퇴'마루에 내려 섰을 때 맏아들이 썰매를 만드느라고 널쪽들을 널어 놓고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가만, 이리 다고. 너희들 손에서 대패'날이 쓰게 되겠니?

박 동무는 바쁜 걸음이기는 하였지만 애들이 밀려던 널쪽을 잘 밀어 주고 대패를 손질해서 잘 건사하고 작업장으로 나왔다.

뜨락또르 M. T. 3로 청단'벌을 갈아 엎는 박 동무는 신'바람이 났다. 해방 전 리 승만 통치 때에는 소두 모자라서 늦봄까지 겨우 갈던 것을……생각하면 참 신'바람이 나는 일이다.

다른 뜨락또르와 경쟁'조루 한창 신'바람이 나서 갈 때였다. 갑자기 뜨락또르에서 쓸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멎겠지…… 오늘은 부쩍 작업 능률을 올려야 할터인데》 이런 생각에만 급급해서 계속해 소리가 나는 것도 그대로 내 몰았다. 그대로 10분, 또 10분, 요란한 쇠'소리와 함께 M. T. 3는 그만 얼어 붙은듯 한 자리에 서고 말았다.

그 후 수개월 동안 M. T. 3는 일을 못했다. 그날 아침 박 동무가 집에서 나올 때 대패'날이 상할까바 바쁜 시간에도 손수 밀어 주고 대패를 건사하고 나온 그 심정이 이 때에도 작용했더라면 M. T. 3가 이처럼 대 파손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같은 농장 2반 지구에서 K. T 운전수가 저녁 교대시에 인계, 인수가 끝나 작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곡축과 페달이 파손되였다.

이와 같이 조그마한 수리도 점검 사업도 제때에 하지 않는 데로부터 국가에 많은 손해를 주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다. 공동 재산, 국가 재산에 대해서 《그것은 내것이 아니니까》하는 낡은 생각은 모든 낡은 것과 함께 속히 뿌리 뽑아 할 것이다.

일거 량득이라고요

평양시 중구역 봉수동 57 반 52 호 목조 단층 주택에 조 용현 동무네가 이사 온 것은 불과 몇달 전이다. 어느 날 조 동무는 무엇인가 생각한듯이 현관 마루를 뜯기 시작했다.

—국유 건물이고 뭐고 이왕 내가 살려면 내가 쓰기 좋게 하고 살아야지.

다음 날 마루가 놓였던 자리에는 석탄이 쌓였고 마루 널판자는 맵씨 있는 책상으로 되였다. 조 동무는 —일거 량득이란 별다른 건가! 석탄을 넣어 두니 좋구 책상을 쓰니 좋구, 바로 이런 걸 일거 량득이라고 한단 말야…

이렇게 국가 건물을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건물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건물 구조를 변경시키는가 하면 못이나 몇 개 제때에 쳐 두었으면 문짝이 그렇게 아주 떨어져 나가서 보수 사업소까지 동원되지 않아도 될 것을 날마다 드나드는 문이건만 그것은 내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내집이 아니니까… 부뚜막의 흙이 좀 떨어져도 까딱 손을 대지 않고 보수 사업소에만 불이 나게 재촉하는 어른들도 계시다.

이러한 분들은 사회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라 인민들이 가져야 할 고상한 도덕적 풍모와는 좀 거리가 먼 곳에 서 계시다고는 생각지 않으시는지—

김 상 애

탐조등

무엇이나 팔까?

여기는 평안북도 북일 상점입니다. 작년 여름철에 숫한 손님들이 북일 상점에 와서 양재'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양재'물 있소?

—없습니다.

손님들은 헛걸음을 치고 돌아 갔습니다. 《여름철에야 녹아서 어떻게 양재'물을 팔아》 손님들이 돌아 간 뒤에 하는 말이였습니다.

겨울철이 되였습니다.

—양재'물이 있소?

—없습니다.

또 숫한 손님들이 헛걸음을 치고 돌아 갑니다.

《양재'물이야 조금 묻기만 하면 손이 다 못 쓰게 되는 판인데 일일히 까서 팔아야 하니 그걸 누가 까서 팔아, 게다가 그까짓 것 팔아야 매상고두 오르지 않는 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양재'물을 요구하건만 녹지 않고 까지 않아도 되는 양재'물이 언제나 오겠는지?

어디 그뿐인가요. 어물이나, 과일들을 안판다고 불평이 자자한 것도 알고 있지만 어물이나 과일이 얼마나 감모가 많이 나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점장 동무는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간장, 된장을 안판다고 야단들이지만 옛날에 언제 조선 농촌에서 간장, 된장을 사다 먹였어? 집집마다 말아서 먹였지요, 그런데 자꾸만 날더러 불평을 하니 야단입니다》 라고. 그러나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장 된장을 사러 오는 것을 보니 점장 동무는 자기 주관을 버리고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사업을 조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딱 한가지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개선 할 데 대한 상부 지시를 받들고 소비 조합 평안남도 녕변군 련맹에서는 많은 수산물과 함께 백하젓을 가져 오게 되였다. 한꺼번에 많은 백하젓을 가져 오려니까 곤난한 문제들이 생겼다. 무엇에다 담아 올 것인가? 생각 끝에 카바이트통을 가지고 가서 인수 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의견이 일치되였다. 카바이트 통에만 실어 온다면 다루기 좋고, 차에 오르 내리는데 조심 안해도 좋고, 차가 아무리 공중제비를 한들 깨질 념려가 없으니 좋고, 서로 맞'장구를 쳐도 찌그러질 념려는 있을 망정 깨지지는 않겠으니 백하젓이야 통안에 있을 게고, 또 독처럼 복잡한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포장을 안하니 숫한 노력과 시간이 절약되니 좋고, 꼭 봉하기만 하면 아무리 굴려도 쏟아질 념려가 없으니 좋고… 그래서 카바이트 통에 많은 백하젓을 실어다 놓았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농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할 것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니 손해인 것은 말고라도 우선 저저 내 버리게 되였으니 많은 조합 재산이 손해를 보았다. 그러구 보니 카바이트 통은 다 좋은데 딱 한가지… 식료품만은 담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못한 모양이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자기네가 먹을 백하젓을 사러갈 때는 카바이트 통을 들고 가지 않을 건 뻔한 일이 아닌가?!

계획과 실적

소비 조합 평안북도 선천군 련맹에서는 지난 기간 자기 사업을 《조리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 그중에서도 수매 계획을 세우는 데는 상당히 머리를 짰다. 그런데 이곳 지도 일'군들이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이러하다. 계획이라는 것은 얼마나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대강 짐작해서 세워 놓으면 그만이야, 해보기도 전에 꼭 얼마 하겠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계획을 대강 자세히 세워 놔 두고 그보다 더 많이 한들 많이 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거던, 그러니까 수매 계획을 될수록 적게 세워 두는 게 상책이야……이처럼 현명한 결론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1957년도 수매 계획이였다.

이 계획에 기초해서 수매 사업이 시작되자 한달 동안에 수목을 16,800 m를 수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계획에는 1년 동안에 겨우 1,000 m를 수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과실은 15 톤이나 할 수 있었으나 계획대로 4 톤 밖에 수매하지 않았다. 그러구 보니 이곳 일'군들이 수매 계획을 세우느라고 상당히 머리는 짰다고 하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하면 일을 안하고 견디어 배길까 하는 방향에서 머리를 짜낸 계획이라고 할 수 밖에……

비판

—영남이 아버지가 만화에 났구나 석탄과 전기를 랑비하더니

—우리 아버지는 만화에 나지 않을는지

평북도 구성읍 허 성필 그림

이런 현상은 없는가?

최 영근 그림

두 제도 하에서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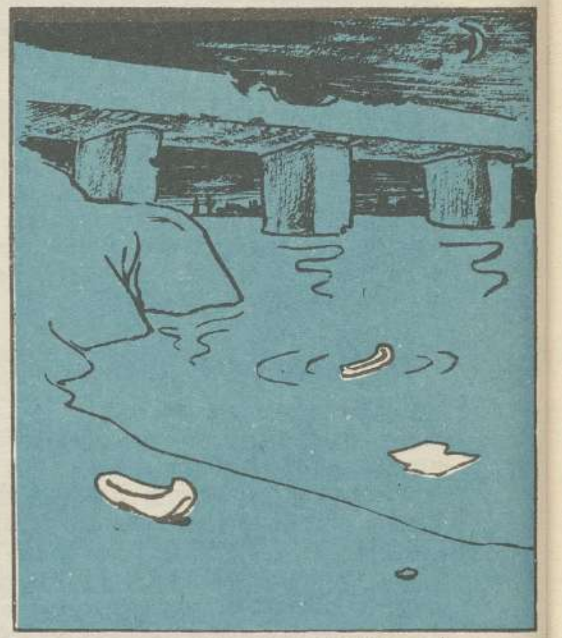
이름 없는 로동자가

행복과 영예를 찾았고

국가의 운명을 토론한다

유명한 예술인이

피를 빨리다 못해



기구한 운명을 마쳤다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황해 남도 트레스트 지배인입니다. 우리 트레스트로 말한다면 녀성 로동자가 남자들에게 못지 않게 작업 능률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트레스트가 맡은 주택 건설에서 녀성 로동자들이 할 일이란 참 많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작업이 운반 작업인데 우리 녀성 동무들은 집 한채라도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지어야 할 이때에 어떻게 책임량만 하고 있겠는가고 매일 자기의 책임량을 훨씬 초과한답니다. 더욱이 남성 동무들 한테 질턱이 있느냐고, 이고 지고 나르는 데는 힘이 센 남자들도 미처 당해내질 못하는 형편이랍니다. 우리 녀성 동무들은 단번에 남자들 보다 못지 않게 무거운 짐을 척척 져 나르는 것은 보통이 랍니다.》

이처럼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지배인 동무는 녀성들이 헌신적으로 작업하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과중한 중량을 녀성들의 힘으로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건만 국가 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조금도 느끼시지 않는 모양이다.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소 기계들을 만들어 녀성들의 힘을 덜어 줄 데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시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기 직장에서 녀성들이 무거운 짐을 나른다는 데 대해서 지배인 동무는 자랑만 하시지만 그것은 자랑보다는 수치이라는 것쯤 아셔야 하겠다.

너무 간단한 일이 돼서

개성 화강석 공장에서는 많은 녀성 로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곳 녀성 로동자들이 맵씨 있게 가공한 화강석이나 대리석은 매일 같이 많은 건설장으로 가져 간다.

녀성 로동자들이 대리석이나 화강석을 어떻게 가공하느냐구 하실지도 모르지만 한번 이 공장엘 가보신 분이라면 이 가공 사업이 주밀해야 하는 일로서 많은 녀성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녀성 로동자들은 흔히는 찬 돌 우에 그냥 앉아서 작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녀성들이 찬 돌 우에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도부에 제의했으나 지도부에서는 《생산이나 보장해 놓고 봅시다》 하면서 생산, 생산만 입'버릇처럼 외우는데 생산도 사람이 하는 이상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까래쫌 못 만들어 주는 리유는 어데 있을까? 아무래도 너무 간단한 문제가 돼서 지도부에서는 잘 잊어 버리시는 모양이시다.

앓기는 않지만

—우리 광산 탁아소에서는 작년도에 년간 계획을 못했다더구나.

—탁아소에서?

—그럼! 침대 수는 많은 데 침대에서 잘 애들이 차지 못했다던 데 뭐?

—그래? 당연한 일이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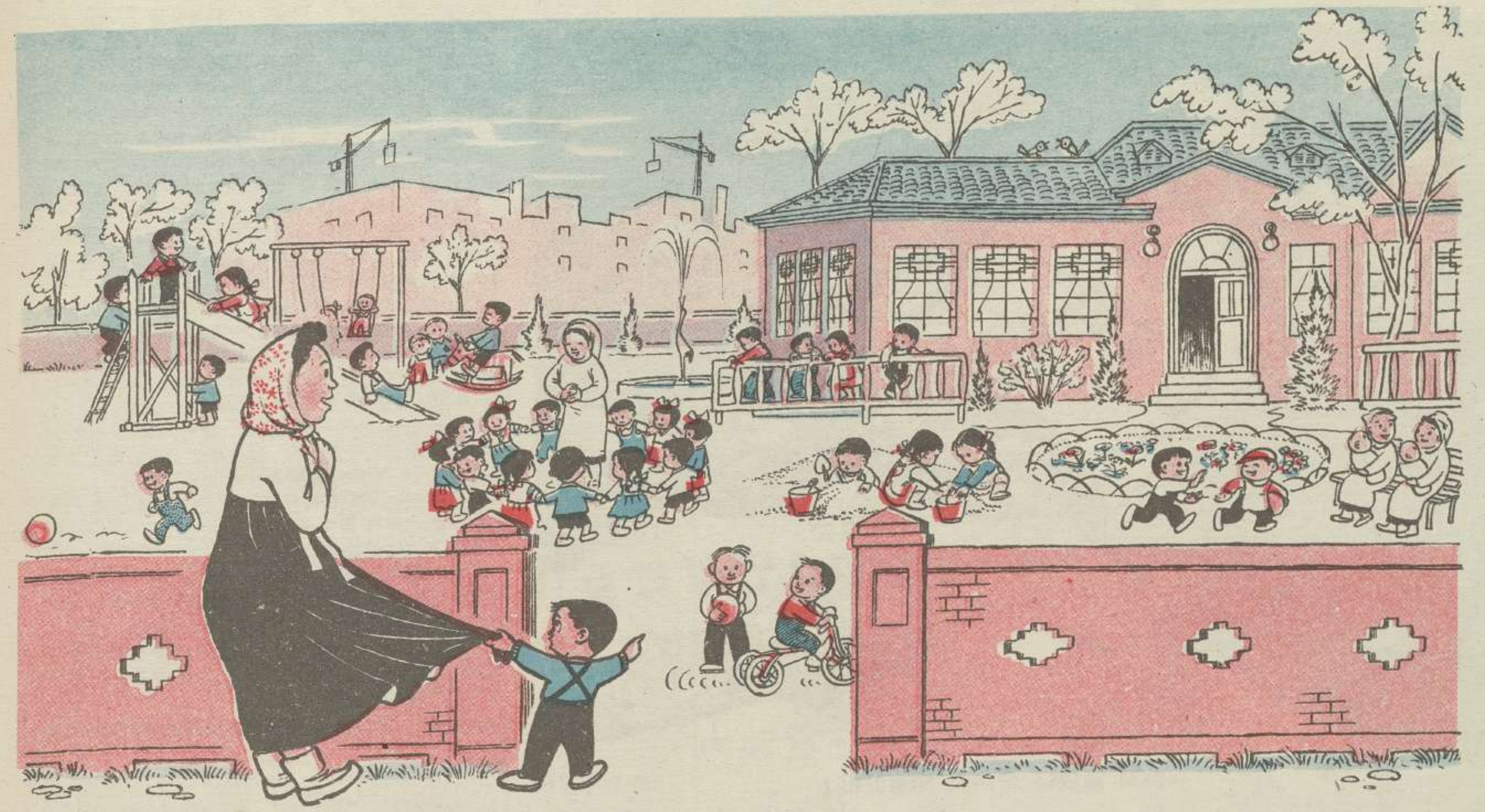
집에서 업고 온 애기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주고 받는 두 녀성 로동자들의 이야기에는 무엇인가 상당한 불만이 있는듯 싶다. 그 동무들의 말대로 광산이나 탄광 탁아소들에서 가끔 계획을 미달할 때가 있다.

—지도부에서는 우리더러 왜 애들을 탁아소에 맡기지 않느냐구 하지만…

—어디 맡기게 됐나?

갱구나 현장과는 멀리 10 리나 떨어져 있는 사무실이나 병원 근처에다 탁아소를 지여 놓았으니 현장에서 일하는 녀성 로동자들은 어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곤난이요, 탁아소에서는 계획을 미달하니 걱정이요.

김 상 애



—엄마 탁아소가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옮겨요

원 광수 그림

그만 제목을 못 들어서

유 항 림

강연이 끝나고 민주 선전실에서 사람들이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두 협동 조합원이 집으로 돌아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오늘 강사 동무는 말을 참 잘두 하더군!》

《그래, 그야말루 청산류수지.》

《얼음에 박 밀리듯 걸리는 데가 없더군!》

《참 아는 것두 많구 모르는 것도 없더라!》

《그렇구 말구, 진시황적 옛날 일로부터 백년 후의 세상까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없더구만!》

《그런데 오늘 강연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어떻다는 이야기지?》

《글쎄 말이네, 숫한 말을 듣긴 했지만 그건 나두 잘 모르겠구만…》

《말하자면 악독한 미국놈들에 대해서 놈들의 새로운 음모를 말하려는 것 같더군!》

《아니지 우리 농촌에 와서 강연을 하는 거니까 역시 농사 이야기를 할 건 사실 안야, 랭상모가 제일이라는 이야기야.》

《그렇듯도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애급으로 쳐들어 갔던 제국주의 놈들이 개코 망신을 당하고 쫓겨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일 길게 한 것 같애.》

《가만 있게……알았네 알았어. 전후에 흥남 비료 공장 같은 훌륭한 공장들이 수많이 복구되기두 하구, 새로운 공장들두 굉장히 많이 건설됐다구 하지 않았어?! 아무래두 오늘 강연의 골'자는 그걸거야.》

《그것쯤은 오늘 강연을 듣지 않구두 다 알고 있던 이야기구……허어 참 말씀을 참 잘두 하시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머리 속이 어리뻥뻥할 뿐이니 조화 안야.》

《글쎄나 말이지, 숫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앉으라는 말인지 서라는 말인지 모르겠으니…》

《좌우간 하나두 나쁜 소리는 안했으니까 다 들어 둘만한 이야긴건 사실이야.》

《가만 있자, 좋은 수가 있네. 오늘 강연의 제목이 뭐라고 하든가? 난 좀 늦어져서 제목을 못 들었네. 방금 강연을 시작하더군!》

《나두 임자와 함께 오지 않았나?》

《제목이라두 들었으면, 하려는 이야기는 알았을 텐데……》

그때 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라 오던 한 청년이 말참여를 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절약하구 저축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두 조합원은 한번씩 뒤를 돌아 보고 나서 고개를 끄떡이였다.

《그래 그래, 절약해서 저축하자는 말이 확실히 있었지.》

《암 있구 말구, 절약해서 쓰구 규모 있는 살림을 하자는 말이 확실히 있긴 있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절약과 문화적인 농촌 건설을 위해 모두 궐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숫한 이야기는 했지만 절약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단 말야. 제목을 못 들은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긴지두 모르겠으니……》

빈대들

아이들의 대화에서

갑산읍에 사는 한 사람이 시장에 갔다 오다가 학생들의 뒤를 따라 가게 되였다. 학생들은 이런 말을 했다.

《네 력사 노트 좀 빌리라, 나 노트 잃어 버려서 그래.》

다른 학생이 '롱담'조로 받았다.

《리자를 주겠다면…》

《넌 꼭 리 용범이란 사람 같구나.》

뒤 따라 오던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흠칫 놀랬다. 그는 바싹 귀를 기우렸다.

노트를 빌리려던 학생이 물었다.

《리 용범이란 누구냐?》

《곡식을 쌀 때 꿔 주었다 비쌀 때 받아 먹는다는 사람 몰라? 김 정은이란 사람이 돈을 꿔 갔다가 석달 후에 많은 리자를 붙여 갚아 주었는 데도 적다고 하면서 술까지 6백원어치 얻어 먹었다는 사람 말이야》

(하 이런! 낯낯이 알구 있군, 내 얼굴까지 알가?)

리 용범은 시침을 뚝 따고 방금 이야기하던 그 아이에게 물었다.

《예 너희들 지금 리 용범이 리 용범이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나 알고 그러니?》

학생은 리 용범을 흘깃 쳐다 보더니

《그럼요, 내가 한번 봤어요, 딱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의아한 표정으로) 아저씨가 그 사람 아니에요??》

리 용범은 급히 대꾸했다.

《아니다 난…》

그리고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 바삐 그 아이들에게서 내빼고 말았다.

이렇게 고리대를 해 온 리 용범은 지금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였다.

윤두소

나는 풍산군 리포리 원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합 관리 위원장으로서 조합에다 내 소를 윤두 (삯을 받고 빌려 주는 것)를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조합에 출자하기는 싫고, 개인농에게 윤두를 주는 편이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개인농에게 소를 윤두를 주었더니 또 말썽이 많으니 말이지요.

리 운 봉

밑 빠진 말

—아직 멀었다 땅까지 내놓아라!

백 인규 그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기만적인 《농지 개혁》을 조작한 이후 땅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1,700만 석의 량곡을 수탈하고도 계속 막대한 곡물을 략탈하고 있으며 그래도 부족하여 땅까지 빼앗고 있다.

그들은 또 보다 직접적으로 자국의 농산물 강매로 농업을 파괴하였다. 미제가 전후에 팔아 넘긴 량곡은 1천 여만석에 달하는데 이것은 2천 억환에 해당하는 남조선 농민 경제를 수탈해 갔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농업 공황의 부담을 남조선 농민들에게 걸머지우기 위하여 농업에 투자할 것을 억제하였고 또 관개 설비 등 농업 시설을 황폐화 시켰다. 그리하여 수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그들은 군사 기지로 토지를 략탈하고 농촌 청년들을 미군의 총알 받이로 괴뢰군에 징발하고 전쟁 비용으로 량곡과 세금을 악착스럽게 긁어 낸다.

토지 략탈은 경지 면적을 축소 시켰고 각종 수탈과 징발은 농업 생산력을 감소시켰다. 최근 10 여년 간에 20 여만 정보의 경지 면적과 50 여만 정보의 파종 면적이 감소되였다. 이에 따라 미곡과 맥류 생산은 이 기간에 평균 30 %가 감소되였다.

이렇게 되여 과거 곡창으로서 량곡 수출의 주요 원천지였던 남조선은 량곡의 부족지로 전변되였고 일제 때보다도 더 락후한 농업 경제로 전락되였다.

남조선 농민들이 만성적 기근과 중세기적 암흑 속에 신음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죄악은 미제가 빚어냈다.

불행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남조선 농촌은 미제와 리 승만의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에서 해방됨으로써만 새 생활의 길에 들어 설 수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조국이 통일되고 북조선에서 실시된 것과 같은 토지 개혁을 비롯한 민주 개혁들이 실시될 것을 열망하고 있다.

리 승만의 식량 대책

박 승히 그림

기근 지대로 변한 〈곡창 남조선〉

류 계 환

작년 10월 13일부 《동아 일보》 3 면에는 락동강 상류 지방의 농촌 실정을 소개한 3 개의 사진이 게재되였다.

한 장면에는 황폐화된 농경지가, 다른 장면에는 겨우 찬 이슬이나 면할 정도로 엮기 설기 엉을 인 움막집들이 찍혀 있었고 또 한 장면에는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는 10 여 명의 헐벗은 아동들의 초라한 정경이 찍혀 있었다.

이들은 국민 학교 아동들인데 먹을 것이 없어 오래 전부터 학교를 단념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판다는 것이다. 김해군, 창원군, 함안군 등지의 국민 학교 아동의 태반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또 다른 신문, 례하면 작년 11월 29일부 《경향 신문》에는 경상남도 량산군의 농촌 실태의 일부가 역시 사진과 함께 소개되였는데 그것은 10일분 식량으로 6 홉의 보리쌀 밖에는 없는 절량 농민들의 참담한 운명과 관련한 것이였다.

《춘궁기》 혹은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의 남조선 농민들에게는 부합되지 않은 말이다. 그들에게는 추수한 그해 가을부터 식량이 없는 것이다. 남조선 《국회의원》 김 영선은 신곡을 거두어 들인지 두달도 못되는 지난 12월 현재로 남조선에 벌써 70만 호의 절량 농가가 발생하였다고 언명하였다. 남조선 농민들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던 보리'고개의 기근이 아니라 추수기부터 시작되는 만성적 기아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농촌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 대하여 한 《농촌 문제》 연구가는 출판물에 다음과 같이 썼다.

《농민들은 밑지는 농사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에 눌려서 꼼짝할 수 없는 아귀의 위협이 잡아 먹으려고 한다. 농민들의 삶'길은 어데 있는가 이 모양의 생활을 파멸의 생활이라고 한다.…무산 농민이 암만 야단을 치고 애를 쓰더라도 별 수 없다. 버는 것은 권력가의 주머니로 들어 가 버린다.》

또 잡지 《농민 생활》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농촌 자체가 살 수 없는 극악한 생활 조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농촌 인구를 계속 도시로 집중시키고 있다. 조금이라도 꾀가 있는 사람은 자기 고장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농촌 중견 일'군을 빼앗고 농촌의 무지를 한층 더하게 하며 로동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어 봉건 요소는 없어질 대신에 덧쌓이고 있다.》

또 다른 실례를 들어 보자. 지난 해 남조선의 한 잡지사는 농촌 작가 리 무영에게 《농촌 문화》에 대하여 글을 써 달라고 의뢰한 일이 있다. 리 무영까지도 이렇게 대답했다.

《전기가 없고 라지오도, 신문도, 한 개의 집회 장소도, 목욕탕도 의료 기관도 교육 시설도 없고 30 종으로부터 50 종에 이르는 세금 아닌 세금 독촉 받기에 경황이 없는 오늘의 농촌 현실에서 어떤 문화를 말하란 말입니까》 즉 남조선 농촌은 《영원한 문화의 불모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곡창이였던 남조선이 기근 지대로 되였는가. 그것은 류례 없이 간악한 미제의 식민지 정책과 수탈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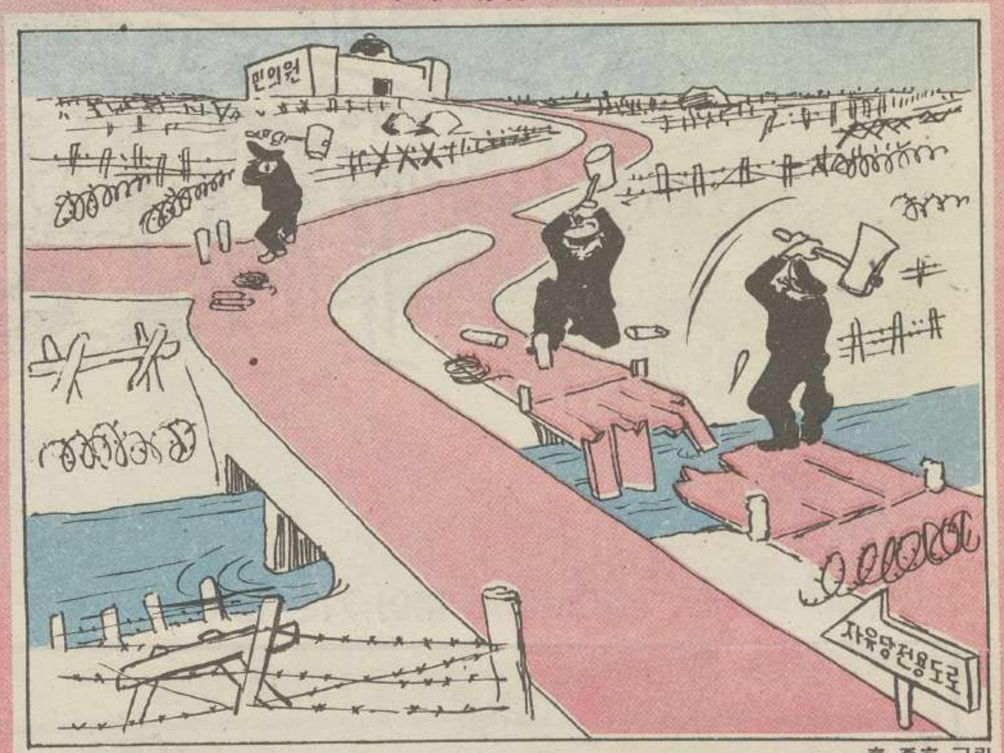
미제는 12년 동안 계통적으로 남조선 농촌을 황폐화 시켜 왔다.

미제는 남조선의 농업을 미국 공업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화학 공업의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 비료를 강제로 실어 들였다. 이것은 지질을 파괴하고 리재률을 증대시켰다. 토지가 산성화된 결과 농민들은 100 여만 정보에 걸쳐 600 여억환의 손실을 입었다.

유권자의 언론 자유

선거 기사와 그에 대한 보수

미국식 자유 선거



홍 종호 그림

미군 대좌의 〈감사장〉

오 홍 택

괴뢰군 《제 22사 사단장》 김 봉철 《중장》은 얼근히 취한채 침대에 누워 《묘안》을 짜내노라고 끙끙거렸다.

최근에 와서 미군 당국과 미군 고문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눈치로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각종 지시들을 고리대 빚'쟁이의 성화보다 더 심하게 들씌우고 있으니 실은 이것도 딸라만 있으면 해결될법한 일이다.

그보다도 그는 이런 판에 단단히 한몫 보지 않으면 자기 생활의 장래도 우려되였다.

사병들을 시켜 숯구이도 해보고 군용차를 동원하여 장사'군의 삯짐도 실어 봤으나 큰 돈 뭉치가 흐뭇한 정도로 매일 밀려 들어 오는 것은 아니다——그보다도 이 방법은 어느 놈이고 다해 먹는 것이니 이제는 낡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흐리멍덩하게 빛을 잃고 있던 김 봉철의 눈이 갑자기 올빼미의 눈처럼 반짝였다.

침대에서 후닥닥 일어난 그는 사단 용달 과장을 불렀다. 김 봉철은 신이 나서 입에 거품까지 물어 가며 설명했다.

사연은 이렇다.

사병들의 급식용 쌀로 밀주를 만들어 팔게 되면 돈 뭉치는 닥쳐 들 것이고 특히 술타령을 잘하는 미군 고문과 또 미군 부대에 선물도 보내면 출세는 문제 없을 것이다.

일은 진척되여 얼마 안가서 영내 깊숙한 곳에는 제법 그럴듯 한 밀주 공장이 사병들의 강제 로동으로 건설되였다. 공장 입구에는 2 중 3 중의 보초망들이 펼쳐졌다.

이미 계획했던대로 특무들과 헌병들의 입을 돈 뭉치와 술로 틀어 막았다.

헌데 사태는 노상 순조로운 것 만은 아니다.

사병들의 식량 공급량은 밀주의 량이 증가됨에 따라 더욱 감소되였다. 사병들의 얼굴이 파리해 갔고 피를 토하고 넘어지는 수가 늘어 갔다. 《탈주병》이라고 불리우는 사병들의 수는 곱으로 증가되어 갔다.

그들이 모여 선 이 구석 저 구석에서는 《배고파 못 견디겠다》는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다.

《사단장》 김 봉철은 이러한 현상들은 특무들과 헌병들의 감시를 더 물샐 틈 없이 하고 강압적 규률을 강화하면 견디여 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는 하루라도 속히 돈을 모아야 했고 미군 고문과 미군 부대장을 삶아 더 높은 자리를 얻어야 했다.

미군 고문실로 첫번 나온 좋은 술을 두 상자 갖다 놨을 때는 고문 녀석도 자못 흐뭇한 표정을 했었다. 그런데 이틀이 못가서 또 술을 보내라고 호통했다. 또 두 상자의 술을 보냈을 때 미군 고문은 요걸 가지고 뭘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리하여 고문에게는 열흘도 못되는 동안에 20 상자의 술을 안겨 놓았건만 전보다도 더 찌프린 상통으로 매사에 시비가 더 심해졌다. 미군 부대장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술이 공급되였지만 여기서도 더 많은 술을 요구해 나섰다.

김 봉철이 밀주 장사를 시작한지 한달도 채 못되는 어느 날 미군 부미 트럭 2 대와 한 대의 찦차가 김 봉철 《사단장》 실 앞에 멎었다.

미군 부대장 부관이 노크도 없이 뛰여 들더니 종이 쪼박을 내 밀었다.

《긴급으로 술 두 트럭만 보내시오, 미군 대좌 해리슨》

김 봉철은 당황했다. 통채로 털어도 술 재고는 한 트럭 밖에 안된다. 매번 이렇게만 되면 돈'벌이는 애당초 글러 먹은 것이다. 그렇다고 미군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난색해 하는 김 봉철의 눈치를 살핀 미군부대장 부관은

《오—사단장, 기분이 나쁘오? 그럼 우리 가겠소》 하고 후닥닥 일어 섰다.

《아니 아니올시다, 대좌의 요청인데 잠간만 기다리시요.》

김 봉철은 이날 창고를 툭 털어 술 한 트럭을 실어 보내였다. 그리고는 더 많은 술을 만들어 이번에는 꼭 팔아 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량곡 출고를 지시했다.

《내 솜씨도 괜찮아, 이렇게만 하면 몇 해 후에는 국방 장관 자리에 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며칠간 이런 꿈을 꾸고 있던 한 밤'중이였다. 헌병 세 사람이 김 봉철의 집에 닥쳐 들었다.

《사단장 갑시다. 서울 본대에서 당신을 호송하라는 명령이 내렸소》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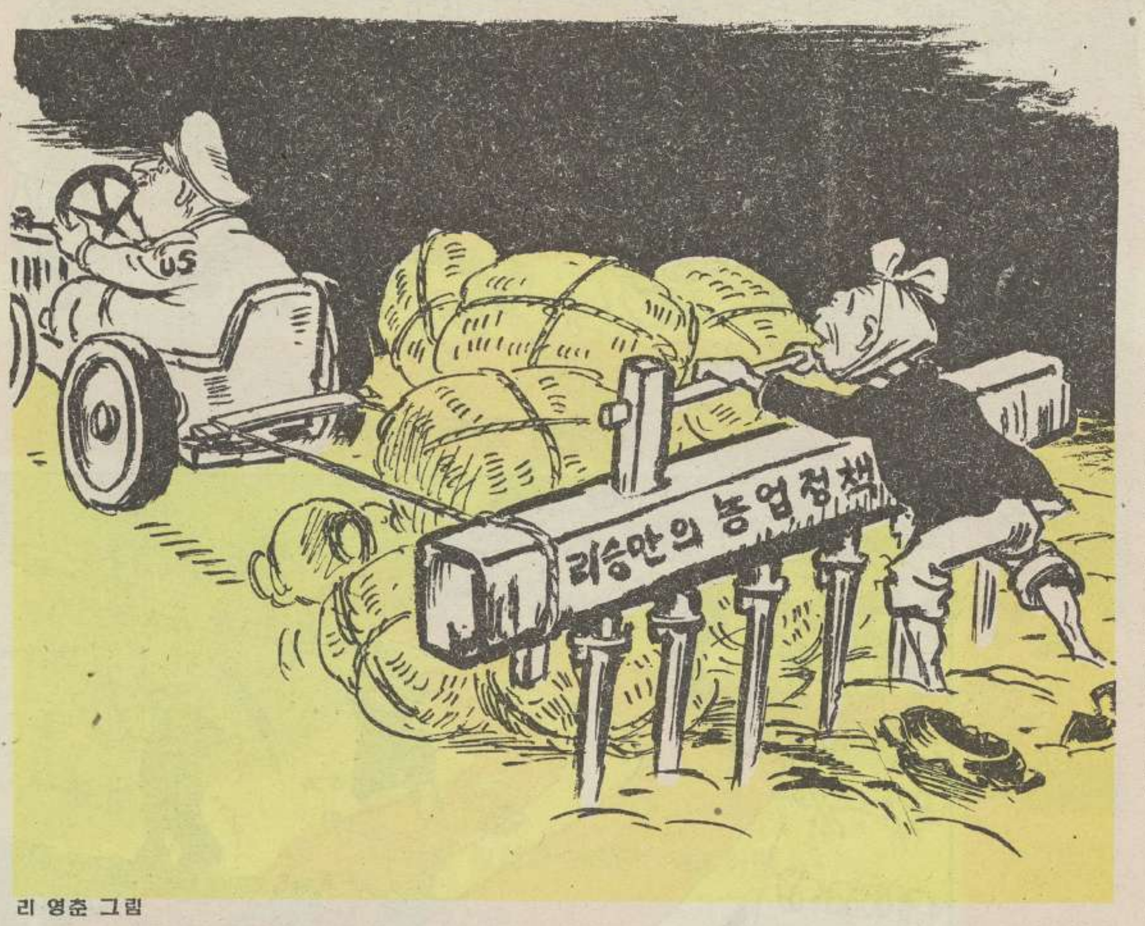
헌병들도 《사단장》으로부터 술상자를 받은 일이 있는 터이라 그렇게 험하게는 굴지 않았다.

《사단장 당신이 왜 미군 부대장의 감정을 거슬렀소? 우리도 말해 봤지만 미군 부대장의 명령이니 아마 서울 본대에서도 별 도리가 없을 거외다. 자 갑시다.》

김 봉철의 머리에는 사흘 전 일이 번개 같이 떠 올랐다. 미군 부대장 부관이 한 트럭에다 술을 다 싣고 나머지 한트럭에다 술을 마저 채우라고 야단을 쳤었다. 김 봉철은 창고를 뒤져 보이면서 인제는 더 없다고 했다. 미군 부대장 부관은 빈정대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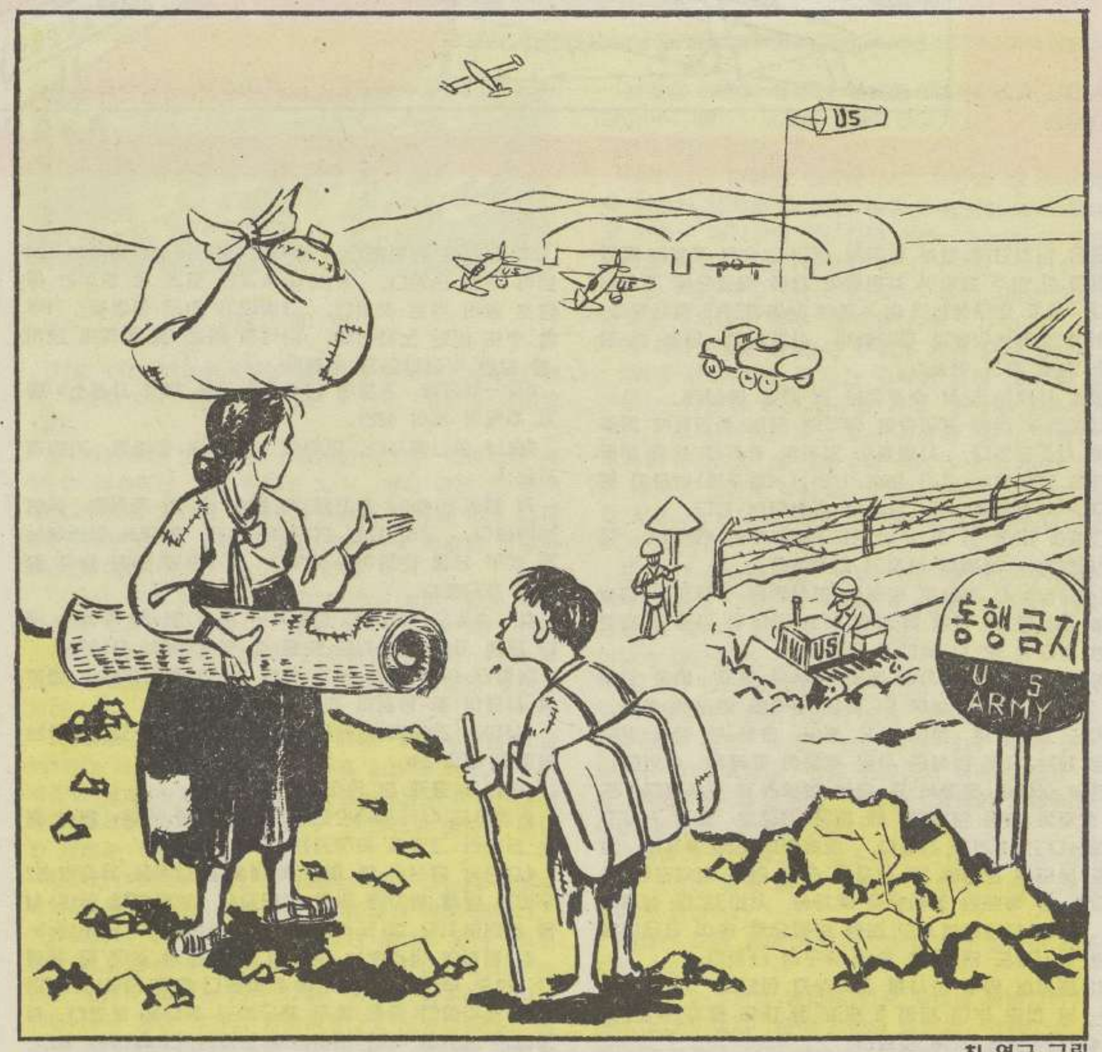
《당신이 인제까지 고은 술 량을 우리는 알고 있소. 해리슨 대좌로부터 감사장이 올 것이요.》

리 승만의 써레질



리 영춘 그림

남조선에서 늘어 가는 공사



최 영근 그림

—어머니 저 사람들이 관개 공사를 해주나?
—아니다 저놈들이 비행장에 뚝을 친다

금비 속의 매장

박 노 을

《엥이 농사나 지어 먹어 볼까?》

남조선 도시들에서 실업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밭가리 할 땅에서부터 종곡, 연장, 노력…… 있어야 할 제 짝이 다 있어야 하는 농사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오늘의 남조선에서랴?

상환곡이다, 수득세다… 그밖에 이름조차 모를 가렴 잡세로 털리고 벗기운다. 한창 나이 장년인 남편과 젊은 아들을 괴뢰군으로 빼앗긴 그들에겐 농사'길도 막막히 막히고 말았다.

몇 천년을 두고 빨며로 빨아 먹은 토질인데 현대의 농사는 그 우에 또 막대한 비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고작해야 퇴비 밖에 모르던 그 시절에 화학 비료는 그야말로 《금》 같은 존재였으리라. 하여 사람들은 화학 비료인 암모니야 파린산 석회 등을 《금비》라 일러 왔다.

각설. 하여튼 오늘 남조선 농민들에게 있어 《금비》를 획득하기란 그야말로 《금》을 얻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로 되였다. 더욱이 국내산이란 있을 수 없고 도입 비료는 농가 대신에 정상배들의 창고에 쌓인다.

《한 가마니 만이래도 주시와요》

《염체 없이 어느 때라구 외상을 줘》

《그래두 언제 주인 집 손해 준 일이 있어와요? 가을에 가서 산하여 드리리다요.》

《엥이 성화라고야, 그럼 여기 채용 증서를 쓰고 가져 가게, 변리는 알지?》

말이 비료지 이렇게 농민들에겐 고리대의 부채가 쌓이고 쌓인다.

충청도 어느 한 농민의 실화——

그는 아예 죽으면 죽었지 래년 농사는 도입 비료의 외상을 쓰지 않으려 결심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야 누구에겐들 없으리, 이 겨울 당장, 먹고 지낼 쌀되'박도 없는 그였다.

《여보 내 한 겨울 로동판에 갔다 오리다.》

《일'자린들 어디 그리 쉽겠다구요?》안해의 대꾸다.

《부두에 가면 그래도 막벌이가 있다나봐》

그는 인천 부두로 간 것이였다.

뚜——배 고동이 울렸다. 겨우 얻은 일'자리—— 싸카스 복장 같은 미국 기'발이 펄럭이는 화물선에서 비료를 퍼내 오는 일이였다. 《비료? 정말 네놈이 원쑤로구나, 또 일'자리에서도 너와 부디치다니……》 그는 한숨 지으며 화물선으로 지게를 지고 들어 갔다.

화물선엔 마대에도 넣지 않은 파린산 석회가 산'데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이다. 마대 보다도 가마니를 헐값으로 빼앗을 줄 아는 미국놈들의 소행임을 어이 모르랴?

비'바람에 굳을대로 굳은 파린산 석회, 한 짐이라도 빨리 더 많이 져내야 임금이 오른다——그들은 석탄 구덩이라도 파 들어 가듯 파기 쉬운 곳을 따라 갱도 아닌 갱도를 이루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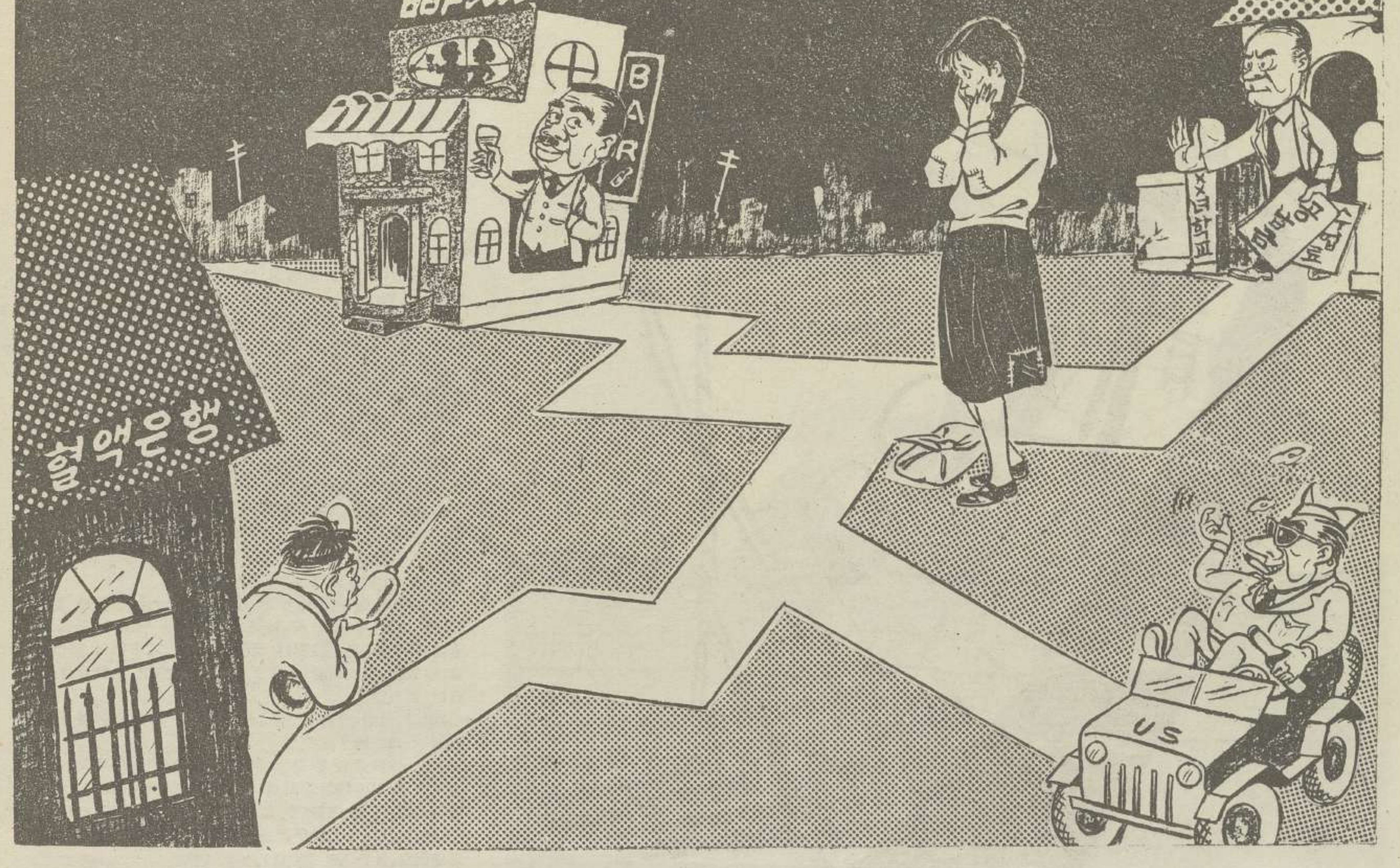
《이렇게 천한 것이 볼에는 그렇게도 사람의 가슴을 태웠느냐》 싶어 그는 중얼거리며 갱도 속으로 자꾸만 들어 갔다. 꽝! 어이 뜻하였으리! 비료'값을 번다는 것도 영영 허사로 되고 말았다. 금싸래기만 같이 귀하기만 하던 그 비료 광산에 묻히여 그는 이렇게 무참히 죽어 간 것이였다.

비료'값을 벌어 가지고 온다던 남편은 영영 올'길이 없고 안해는 이봄 농사를 어이 하리. 로력이 없는 그에게 그 비싼 고리대의 금비 외상도 얻을 길이 이제는 막연한 것이다.

리 영춘 그림

길 목을 지키는 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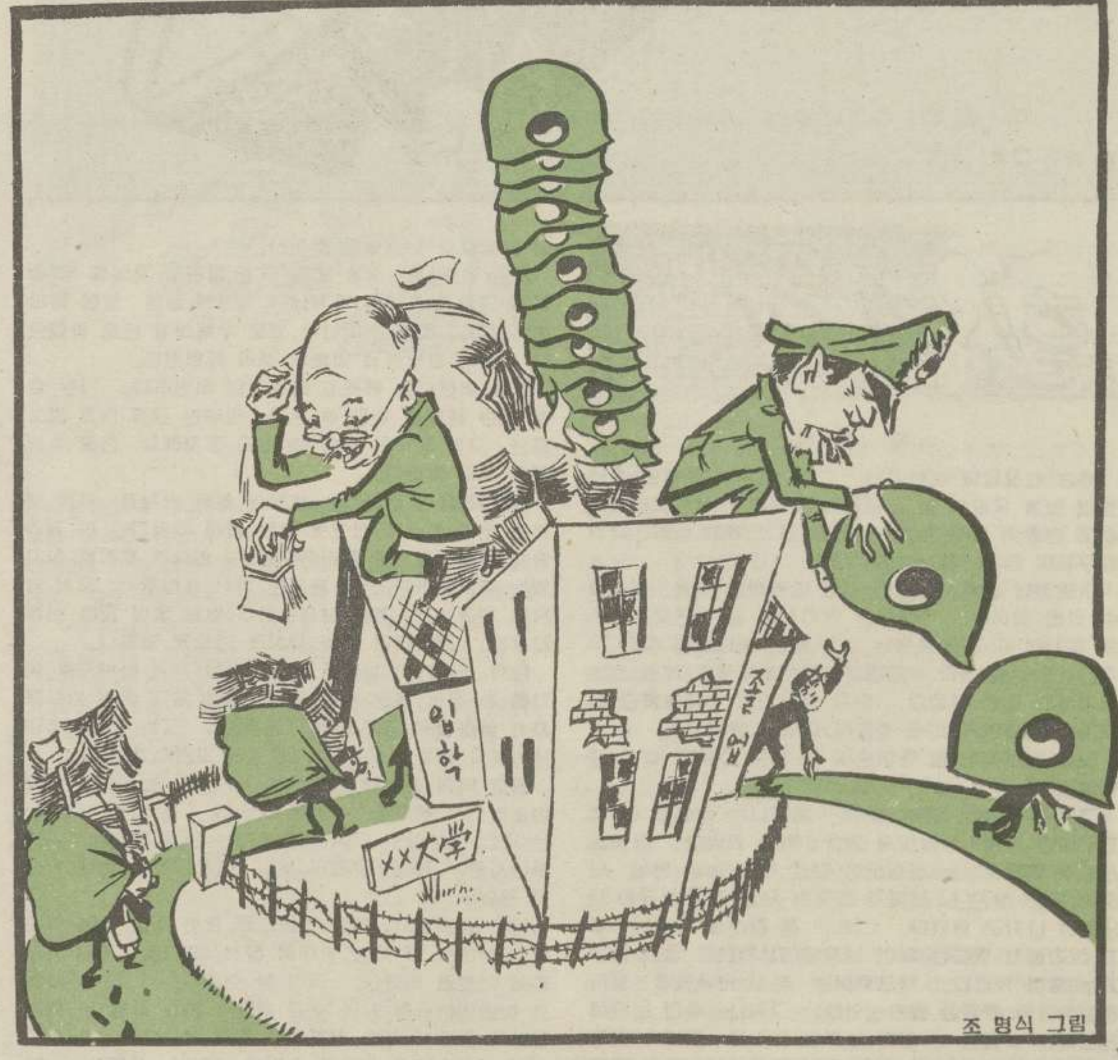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남조선 농촌의 시장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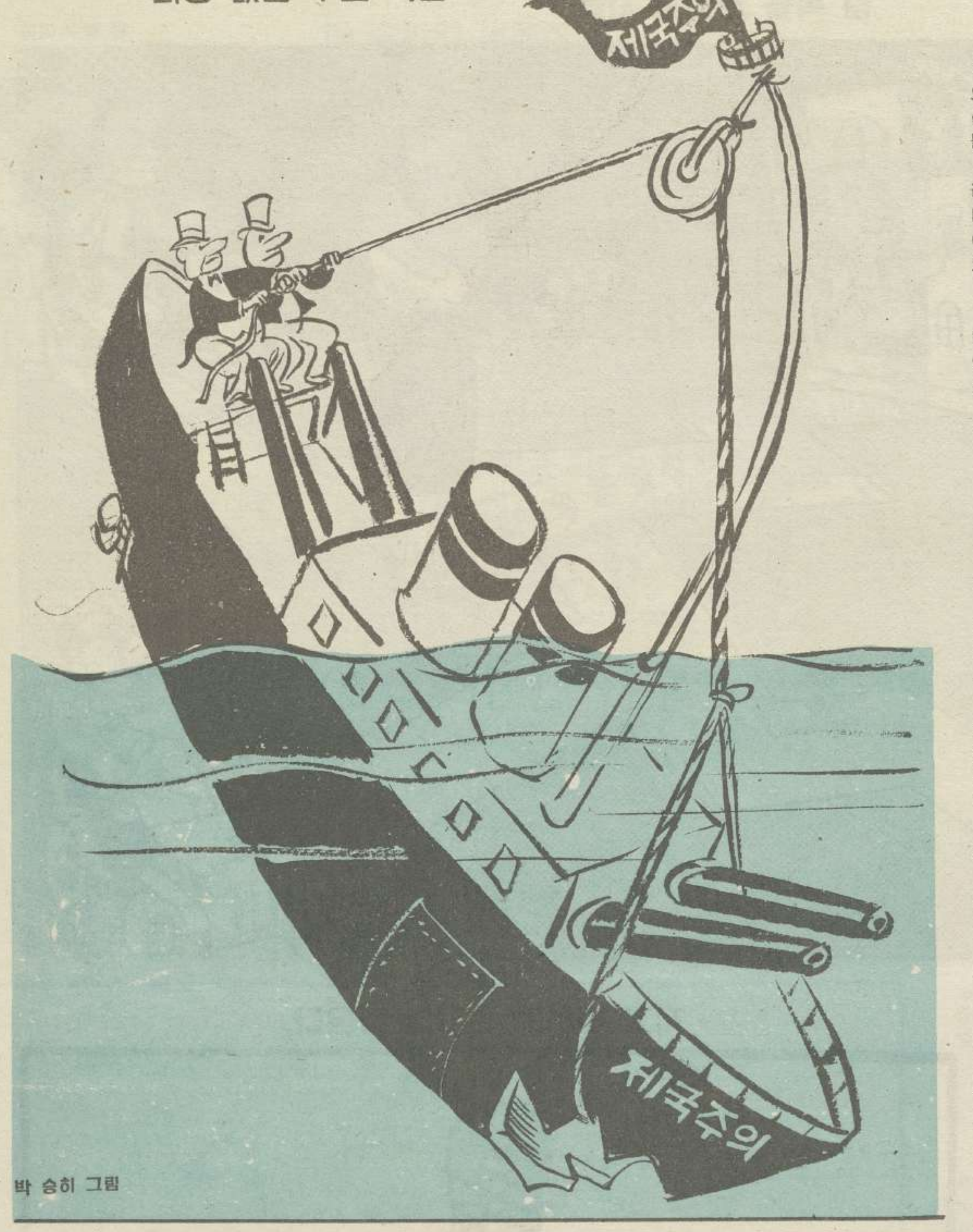
리 영춘 그림

지고 들어가 쓰고야 나온다



조 명식 그림

희망 없는 구조 작업



박 승히 그림

유 항 림

톰은 십삼세의 소년이다. 그는 공원에서 백인 소년들과 함께 유쾌히 놀고 있었다. 백인 소년들도 총명하고 명랑한 톰과 함께 놀기를 좋아 했고 그도 자기 친구들에 대해 불만이 없었다.

이렇게만 말해도 톰이 흑인 소년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미시시삐 강 연안의 조꼬만 도시인 이 거리에서는 그가 흑인 소년이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피부색은 희고 코는 뾰죽하고 눈은 파랗다. 단지 지나치게 꼬불꼬불한 고수머리가 흑인의 피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피부색이 흰 흑인으로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래력이 있다.

그의 할머니는 흑인이였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맥크로이란 자의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농장주 맥크로이는 심심하면 말을 타고 농장 안을 한 바퀴 돌군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하러 나가군 했었다. 그래도 정 갑갑할 때에는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녀자를 고'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맥크로이는 본시 안해에게 절대 충실하기를 맹세한 남편이였다. 그러나 흑인 녀자를 건드리는 것쯤은……그의 안해도 그것은 외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냥을 가는 거나 다름 없는 그런 정도의 도락으로 인정했을 뿐이다.

톰의 할머니는 애를 배고 배가 불러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농장에서 쫓겨났다. 그때 낳은 것이 톰의 어머니다. 톰의 어머니는 코도 우뚝하고 눈도 파랬으나 살갗이 갈색이고 입술이 조금 두터웠다.

톰의 어머니는 예쁘고 매혹적인 미인이다. 그는 오래 동안 세탁부 일을 해 온다. 피부는 그리 희지 않았지만, 그가 세탁한 것은 늘 희고 깨끗해서 단골 손님들이 적지 않았다.

언젠가 톰의 어머니는 세탁한 것을 가지고 지방 재판소 판사 죤슨네 집으로 갔던 일이 있었다. 이 거리에서 인도주의자로 알려졌으며 늘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는 중늙은이인 죤슨 판사는 젊은 세탁부가 자기 방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보자, 아무 말도 없이 문에 쇠를 잠궜다. 그리하여 톰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톰의 어머니가 농장주 맥크로이를 자기 아버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톰도 죤슨 판사를 자기 아버지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는 그저 흑인 세탁부의 아들인 흑인 소년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톰이 백인 소년들 틈에 섞여 날뛰며 놀 때 보면 흑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와 함께 노는 백인 소년들도 그가 흑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들이 유쾌히 노는 데는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

톰은 공원에서, 백인 소년들과 함께 며칠 전에 영화에서 본대로 곰 사냥 놀이를 하고 있었다. 톰은 나무 밑에 엎드려 있었다. 곰이 된 소년이 저 편 숲 사이로 어슬렁어슬렁 기여 오고 있다. 톰은 사냥'군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 휘파람을 휘휘 불었다.

곰이된 소년은 휘파람 소리를 듣더니, 사면을 한번 살펴 보고는 나무 숲을 헤치며 톰이 있는 쪽으로 달려 오는데 그 품이 여능 곰의 동작과 같아 뵈서 톰은 무심중 킥킥거리고 웃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휘파람을 불었다.

그들의 유희가 그대로만 진행되였다면 아주 유쾌히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 돌발했다. 엎드려 있던 톰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의 엉뎅이를 모질게 걷어 차는 바람에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아이쿠, 왜 이래? 누구야?》

고함을 지르며 다시 벌떡 일어서는 그의 가슴에 이번에는 발'길이 안겨졌다. 그의 앞에는 직물 공장 주인 흡킨스의 둘째 아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를 노려보며 서 있다.

《껌둥이 자식 같으니라구! 네가 감히 야료를 해? 이 망나니 자식아, 죽어 보겠니?》

《아닙니다. 난 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닥쳐라! 요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구!》

《아닙니다.난 여기서 동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흡킨스는 일어 서는 톰의 정갱이를 찼다.

《잔말 말아, 휘파람을 휘휘 분 건 누구냐? 킥킥거리구 웃은 건 누구냐?》

총명한 톰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곧 알아 차렸다. 젊은 흡킨스는 바로 며칠 전에 결혼했다. 그의 뒤에는 신혼한 그의 안해가 양산으로 나무 가지를 툭툭 치면서 뾰루퉁해 서 있다.

공원에서 산보하던 신혼 부부는 휘파람 소리를 들었을 때 신혼 부부 답게 서로 얼굴 마주 보며 방긋이 웃었을 뿐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흑인 세탁부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신랑은 대번에 분개했으며 모욕으로 느꼈던 것이다.

《이 껌둥아! 네가 어디라고 감히 백인 부녀를 야료하려구 해, 응?》

톰은 억울했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흑인으로서 백인에게 항거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린 그로서도 모를 수 없으므로 참고 변명을 했다.

《아닙니다. 난 동무들과 곰 사냥 놀음을 하며 놀고 있었어요.》

《닥쳐, 껌둥이들은 거짓말쟁이다.》

흡킨스는 두리번거리다가 안해의 손에서 양산을 뺏어 쥐더니 톰의 얼굴을 내려쳤다. 그러는 통에 함께 놀던 백인 소년들이 그리로 모여 들었다. 백인 소년들은 자기들의 유희를 설명하고 톰이 휘파람을 분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말했다.

그러자 흡킨스는 더욱 분개하고 흥분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자기가 경솔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백인과 흑인 사이의 말썽'거리에서 흑인이 정당하고 백인인 자기가 옳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안해의 양산이 중동으로부터 꺾어졌다. 흡킨스는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안해의 양산이 부러진 화푸리로, 악다구니를 계속했으며 몇 번인가 더 톰에게 뻰치를 먹였다.

그날 안으로 거리에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백인들은 분개했다. 톰과 함께 놀던 소년들의 부모들은 백인에게 불리한 말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아들들을 단속했다. 백인들은 백인 부녀자에 대한 흑인 소년의 《야비한 행패》를 묵과할 수 없다고 쑤근거렸다.

이튿날 아침, 공원에서 나무에 목이 매달려 있는 톰 소년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그의 시체는 발가벗기우고 몸뚱이에는 콜탄칠을 한 우에 새 털들이 온통 붙여 있었다. 사람이라면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였다.

공식적으로는 비밀인 이 린치 (개인적 형벌)는 백인들 중 소위 유력하다는 층에서는 비밀이 아니였다. 유력한 백인층에서는 이 린치를 발기하고 지도한 사람이 죤슨 판사의 맏아들인 죤슨 변호사이고 거기 참가한 십 여명의 백인 신사들 중에는 맥크로이 청년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의 체내에 4분지 1의 흑인의 피가 흐른다는 단 하나의 리유 때문에 죽은 톰의 사건은 이것으로 끝났다. 단지 여기에 참고 삼아 한마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첨가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톰이 죽은지 사흘 후에, 죤슨 변호사네 집에서 여러해 기르던 늙은 고양이가 죽었다. 인정 많고 다감한 죤슨네 온 가족은 고양이의 죽엄을 슬퍼했다.

부인은 손'수건 하나를 다 적시였고 딸은 저녁을 먹지 않았고 죤슨 변호사는 안해와 딸을 위로하노라고 그날 밤만은 외출하지 않았다.

적절한 선고

조 명식 그림

식민주의자—이게 누구한테 온것이냐?!
의 사—바로 당신 한테요……

월가에서

최 영근 그림

김 현 석

워싱톤의 하늘조차 찌프리고 있었다. 눈이라도 펑펑 쏟아져서 은 세계라도 이루어 졌으면 아이젠하워의 마음에 낀 거스름을 씻어 내기라도 했으련만 눈조차 오단 말고 오단 말고 하여 워싱톤 거리의 우중충한 모습이 곱사등이의 면모 그대로였다. 원래는 아메리칸 럭비를 좋아 하는 아메리카식 《명랑성》의 소유자였던 아이젠하워가 최근 년간에 마음도 몸과 함께 완전히 늙어버리고 말았다.

《아이크, 가엽게도 당신은 요 몇년 사이에 영 못쓰게 됐어요》

그의 집 녀성이 그를 애칭으로 부르며 간사를 부리느라 한 말이었는데 우리의 《점잖은》 미스터 아이젠하워, 아메리카식 《례절》 조차 유린하면서 문을 쾅 닫아 버리고 기분을 회복해 볼 목적으로 들렸던 방을 나와 버렸다.

자기 서재의 깊숙한 쏘파에 온통 파묻히듯 몸을 내던진 아이젠하워는 《덜레스가 몽땅 일을 글러 먹게 한단 말이야, 한 피'줄을 받은 형제들 한테까지 인심을 잃고 있단 말이거든》

왈칵 노여움이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이 몸이 솟구치려 했으나 깊은 무덤처럼 쏘파는 아이젠하워의 빼빼 마른 몸을 삼켜 버린채 놓아 주려 하지 않았다.

아편인이 몰릴 때의 정신 상태 그대로 아룽아룽해진 아이젠하워, 3 센치메터나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면서 한 메터 깊이의 명상 세계로 들어 섰다.

《말썽 많은 아세아 아프리카에 대한 사'적 고찰을 해 보아야지, 1800년 대부터 시작해 볼가, 참 그때야 좋은 세상이였지, 그 지역을 다루는데 몇 척의 무장선이면 되였거든 대포 몇 방 터뜨리군 아프리카 토인들을 마음대로 잡아 올 수 있었지, 정말 참 좋은 세상이였어》

아이젠하워의 눈은 책상 우에 놓인 당시 해적선의 모형을 바라다 본다.

《1900년 대에 들어 와서도 처음 수십년 간이야 역시 형편은 마찬가지였지, 아세아 아프리카의 전 재보가 우리 주머니 안에 든 것이였으니까, 펜타곤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만 잃어버리지 않은다면 이 주머니 안에 든 온갖 재보는 틀림 없는 우리 것이였으니까》

쏘파 우의 명상 세계에서 자못 유쾌해진 아이젠하워, 뉴욕 은행 자기 구좌에 기록된 엄청난 수'자를 흐뭇한 심정으로 외우면서 휘파람이라도 휠겨 올듯…

그러나 명상 세계에 작용하는 법칙은 아이젠하워의 기분에 전적으로 복종할 수는 없는 것이였으니 아세아, 아프리카 사람들을 몇 방의 대포'소리로 놀래우던 시대가 영원히 지나가고 아세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올리는 목소리에 오히려 당황케 된 최근 년간의 제반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되자 그만 또다시 병'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몇 방의 대포'소리로 아세아, 아프리카 사람들을 놀래우는 것이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포'소리 아닌 육성의 목소리가 백악관 사람들을 놀래우게 되었으니 어찌 우울증에 빠지게 되지 않으리.

세상은 바뀌였다. 완전히 바뀌였다.

아이젠하워는 깊은 명상 세계에서의 사'적 고찰의 결론으로서도 이 사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반둥이나 카이로에서 높이 오른 아세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위대한 단결의 일대 함성 앞에서 백악관이 부들 부들 떨게 된 사실을 뒤집어 엎어 보려는 데서 아이젠하워의 건강에도 좋지 못한 무리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목소리가 그 누구의 명상의 분위기도 깨뜨리지 않은 순리롭고도 또 순리로운 목소리인 것은 틀림 없다.

다만 아메리카식 사고 방식으로 위히운 아이젠하워식 명상 세계에서만 이같은 아세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목소리가 명상을 산산 쪼각 나게 하는 뢰성으로 되게 되는 것이다.

1950년 대로 사'적 고찰을 끌고 내려 오면 아이젠하워의 철학적 명상 세계에는 맹렬한 회오리'바람이 불었다.

나토 군사령관 당시의 용맹성 회상으로 기운을 되살군 아이젠하워, 쏘파의 깊은 무덤으로부터 불끈 솟아 올라 서재 한 복판에 우뚝 섰다. 워싱톤의 초상화를 우르러 아메리카 대통령으로서의 《위업》을 겨우 회복했을 때 밀려든 감격의 눈물까지 글썽해진 아이젠하워, 십자가의 한쪽 긴 막대기처럼 곧추 내리다가 오드득 무릎 매디 굽히는 소리까지 내면서 꿇어 앉아 기도'조로 웅얼 거렸다.

《신이여! 저에게 명상의 안식을 주옵소서, 요란한 목소리 들리지 않도록 한 두 방의 대포 소리만으로 온 세상이 잠잠하도록, 고요한 안식을 주옵서서, 아멘》.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인쇄 1958. 3. 10 7—72550
발행 1958. 3. 15 값(50원)

철은 바뀌였다

8054 ХВАЛЬСАЛЬ
ПЭК 8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7 1.12 Р8074

송 용남 그림